

호박밭에서 행자 사미와 함께 노력하는 환안 스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우주가 그대로입니다.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은 혼자만 행복할 게 아닙니다. 전 중생이 다 그 혜택을 받아갑니다. 마음의 중심이 선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도 밝습니다. 밝은데 들어가서도 빛을 발하고 어둠에서도 빛을 보충해 줍니다. 즉 밝은 데도 끄달리지 않고 어둔 것도 버리지 않고, 밝고 어두운 것을 다 쓸 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생명이란 자기 마음이 정해져서 회전된 밝은 지혜가 천지 생명이 태어나는 밑받침이 되고, 갈때 뒷처리가 되고, 살아가는 동안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 남의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고 속으면 밝은 사람이요. 평생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은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밝아지면 습관이 바뀌어 집니다. 실제로 합류하게 해 본래의 습관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은혜가 발생합니다. 밝아지면 우주만유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명백한 남습니다. 가는 곳마다 밝고 같이 어느 중생에게도 희망을 안겨주지요. 꾀지 않은 중생들이 괴롭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 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 나중에 하고 나중할 일 먼저 해놓고 울고 남을 탓하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진 자성이 밝음 중심에 선 사람이 많으면 불국토요. 극락입니다.



환안스님은 예불 천도재 운력 참선의 4박자 일과로, 어느 원로 스님들과 수행상이 다르다.

스님께서는 다른 원로스님들과 달리 지금도 출가당시 그대로 법당에 불 천도재 운력을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은 수행상이라고 봅니다.

남북 통합의 시대 맞아

▲나는 출가한지 50년이 돼가지만, 늘 옛그제 중된 생각으로, 늘 초심으로 삽니다. 당연한 일이니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조선이 생항수를 끌고 자리잡은 여기 천자암에 온지 25년째입니다. 폐사된 사찰 이다시피한 이곳에 처음 올 때 공양간에 놓은밥이 다 불어 산을 이룰 정도 인데다 방에는 쥐가 나오고, 참 기도 안 찻습니다. 50여년전 출가해 오대산에서 수행하다가 이곳으로 온전대 선대 선인이 살다간 도량을 내가 복원할 수 있다면 뼈가 다하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격정도 많았는데 이제 복원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천지 재물 성현의 천운이 보강되고 생명마다 화합이 되게 하려 하는데 되긴 될 것입니다.

가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세력을 구가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고구려는 당시 한마디로 자만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만심은 구성구석 씌어 멎드는 표정이예요. 그러다보니 정치기술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남북 통합으로 고구려 영토 환원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통아시아 모든 지도자들과 합의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한물타리라는 공동의 염으로 단결을 강조한 명분을 앞세우고 제 주도를 살만들의 물질적 대가를 희사하는 예의를 갖추면 작풍이 나올 것입니다.

▲글로 불자들에게 할말씀 주십시오. ▲재행이 무상입니다. 나와 상대가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공부만 하면 선지식은 저절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 탁마 해주게 되고 제 물건은 제가 찾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담=위영린 부국장 대우 (yryui@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nia.com)

호림스님이 쓰는 이련스님

■무술고수 대오스님 ㉔

고조 유방을 도와 한(漢)나라를 창건한 한신(韓信)이라는 장수가 있다. 그는 본래 한(韓)나라의 귀족 출신이었다. 한때 자신의 나라가 진시황에 의해 멸망하자 망국의 한을 품고 저자거리에 몸을 숨기고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때 무사로서 칼을 차고 다니는 그에게 평소 그를 골사납게 생각한 거리의 불량한 건달이 시비를 걸었다. 칼을 뽑아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한신이 거절하자, 용기없는 비겁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고 했다. 한신은 아무말 없이 그 건달의 사타구니 밑을 기어갔다. 그런 그였기에 훗날 초패왕 항우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한신은 뒷날 이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그 건달은 나의 상대가 아니었다. 만약 내가 무용심이 나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싸워 그를 죽였다면 한낱 저자거리의 건달을 죽인 살인자로서 일신을 망쳤을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만용을 부리지 않고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 세상에는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 있어도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고준한 경지 이르렀지만

그는 더 부드러워졌다

특히 근육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 더욱 끝없는 힘이 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힘만 믿고 상대를 알아 보거나 억압하기를 예사로 하는 사람이다. 평소에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가 하면 상대와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공연히 눈여다가 힘을 주고 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불쌍하고 딱해 보인다. 바로 대오스님이 그런 사람이었다. 옆에 있던 나도 그랬고. 그러나 그 패싸움이 있고난 뒤에 주지스님으로부터 질책과 함께 "무(武)를 익히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다." 하는 가르침을 받고는 사람이 아주 달라졌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알고 고치고 못하는 사람이지만, 잘못을 깨닫고 나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할 수 없이 훌륭하다. 대오스님은 정말 철저히 달라졌다.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놀랄 정도로 달라진 것이다.

▲나는 주지스님의 가르침을 받기전까지는 진정한 무인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진정한 무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더욱 열심히 무도를 연마하고 있을 때였다. 수행사에 한 스님이 찾아왔다. 한눈에 보아도 몸이 크고 힘겨나 쓰게 생겼다. 말을 함부로 했고 행동거지가 거칠었다. 안하무인이었다. 우리를 참을 수 없게 한 것은 원로하신 주지스님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차 주지스님은 그 스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 그러자 그 스님의 행동이 접

점 도가 심해져 갔다. 한번은 밥당에서 저녁 예불을 할 때였다. 내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워 향로에 꽂고 있는데 그 스님이 다가와서는 촛와 향불을 끄더니 자신이 다시 촛불과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주지스님과 대오스님은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날지만 참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였다. 대오스님이 주지스님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갔다. 그때 그 스님이 몇가지 먹을 것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수행자가 먹어서는 안되는, 도저히 사다줄 수 없는 것이었다. 대오스님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장을 본 짐승에는 당연히 부탁한 것이 없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술을 한잔 하고 스님이 대오스님을 보라고 했다. 그리고 시비를 걸었다.

"야! 너 평소 나한테 유감있어? 말도 잘 안하고 말이야. 너 거만하고 아니꼬운 놈이야. 나는 너같은 놈을 제일 싫어해. 오늘 맛



그림-문병성

좀 봐야 하겠..." 미처 말도 끝내지 전에 주먹이 날아갔다. 대오스님은 아무 말없이 맞고 있었다. 주먹다짐을 하기로 하자면 그는 대오스님의 쪽수가 못되었다. 대오스님이 그냥 맞고만 있지, 더욱 그 스님은 화가 났고 다시 주먹이 대오스님의 얼굴위로 날아갔다. 그렇게 저항없이 몇대를 맞자 대오스님의 얼굴은 코피가 터져서 피범벅이 되었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몽둥이로 그 스님을 치려고 하자 주지스님이 나와 "그만 되었다" 하지를 않는다.

그 이른날 사람을 그처럼 때려놓고 그 스님은 새벽같이 떠나갔다. 대오스님은 주지스님의 꾸지람을 듣고 법당에서 참회기도를 해왔다. 주지스님은 "그 스님은 잘못이 없다. 아직도 너에게 자비심이 부족하고 하심(下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 정진하여 아주 명칭한 바보가 되도록 해라. 너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무인이다" 하는 훈계를 내렸다. 그렇다. 대오스님과 같이 무술을 익히는 사람에게만 어찌 하심이 해당될 것인가. 도를 닦는 모두에게 하심이란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아니던가. 그후 오늘날까지 나는 대오스님이 어디까지 힘차람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여 이제는 날이 넘볼 수 없는 아주 고준한 경지까지 이르렀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글>

“효도는 사는 방법 배우는 것”

“한 생각 바꾸면 생산자 돼요”

외면적 자연으로부터 내면적 생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및 생명 복제 기술은 '생명'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생명은 처음에 시작할때 일체중생의 영원한 지혜와 행복의 모체로 태어났습니다. 한 생명이 천지 자연생명의 근본이 되고 마음이 품종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형체 아닌 것이 형태의 주인인 셈입니다. 마음은 대우주 근본을 창조해 내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첨단과학이 활발하게 연구하는 생명사상의 밑바탕에는 이런 진리를 외면 내지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복제한다고 해도 그 업력까지 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법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천수다라니'와 '금강경'을 많이 권장하시고 계신데요. ▲마음을 정해 놓으면 생산자가 됩니다. 천지 가운데 살지만, 천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무명대해를 다 퍼내며 천지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천수다라니' '금강경'을 하면 60억여 세포가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죽었었다. 그런 것입니다. 제 본질로 또렷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 경지로 바뀌어 집니다. 이것이 불교를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한 생각 넓혀 한 마음을 바꾸세요. 세상말로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내연행이 일체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의 지혜와 법과 역량이 그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인생이 최종에는 다 외로워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외로워요. 마지막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심정에도 아버지를 구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니 인당수물에 중령 들어갔고 재석전에서 용왕에 지시해 구한것 아닙니까. 한 생각 바꾸면 자성정정으로 탈바꿈합니다.

현대인들은 나날이 바빠집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바빠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밝은 사람의 모습이 그림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보물창고 아세요. 당장 문밖을 나가면 그 사람들 속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뜯어먹고 살지 않아요. 다만, 나 한테 속지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고 속으면 밝은 사람이요. 평생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은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밝아지면 습관이 바뀌어 집니다. 실제로 합류하게 해 본래의 습관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은혜가 발생합니다. 밝아지면 우주만유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명백한 남습니다. 가는 곳마다 밝고 같이 어느 중생에게도 희망을 안겨주지요. 꾀지 않은 중생들이 괴롭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 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 나중에 하고 나중할 일 먼저 해놓고 울고 남을 탓하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진 자성이 밝음 중심에 선 사람이 많으면 불국토요. 극락입니다.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책들입니다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첨단 의학의 통새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요법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체질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호흡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풀리지 않고 풀리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소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좌송우들로 맺어지는 인연의 아담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 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각종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공급처 :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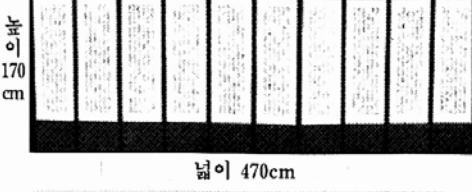
* 관절염, 류마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방문사질, 전화상담-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대표 전화 3471-5008 팩스: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파업체로 쓴 수량품 병풍

"모법연화경 여래 수량품 심품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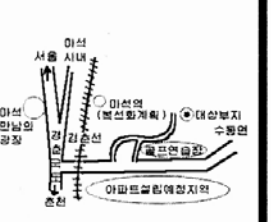
이 글씨체는 수십년전 기도정진으로 전수 받은 파업체로서 글자체가 독특하고 전무후무한 글씨체입니다. 이 연화경 작품은 계속 독경 정진의 원력을 가한 작품이며, 파업체를 연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법연화경 수량품, 병풍 10폭을 두루마리로 전해드립니다.



대한불교대승연화회 천흥사 전 화 0591)746-7350 휴대폰 017)552-7350

남양주시 최고의 대기빌터

- ▶소재지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면적 : 2,000평 ~ 10,000평
▶가액 : 상담후 결정
▶연락처 : 0346)511-0433 017)302-2550 017)391-1003



- ▶특징
1. 46번 경춘국도에서 직선 1Km
2.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기반시설 완료
3. 송라산 자락에 위치하여 마석사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4. 정남향 대지



전원주택지로 개발이려다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 웨슨시킬수가 없었습니다.